

동행

November 2021

* 특별인터뷰

- 김대현 조선대학교 공과대학장

* 지반공학회 소식

- 2021년 10월 정기이사회

- 2021년도 고문 초청 간담회

- 광주·호남지역발전특별위원회 방문

* 만남

- 회원 인터뷰 : 황은아회원 (미래지반연구소)

- 회사 탐방 : 휴먼앤어스(지반조사)



특별인터뷰

- 조선대학교 공과대학장 김대현 교수

지반공학회 소식

- 2021년 10월 이사회
- 2021년도 고문 초청 간담회
- 광주·호남지역발전특별위원회 방문

만남

- 회원 인터뷰 : 황은아회원(미래지반연구소)
- 회사 탐방 : 휴먼앤어스(지반조사)

Event / Quiz

- 11월호 표지 사진 이야기
- 11월호 Quiz

Special INTERVIEW

김대현 조선대학교 공과대학장

Q. 안녕하세요, 학회 뉴스레터에서는 특별인터뷰로 조선대학교 공과대학장 김대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학회 회원분들에게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99년 첫 직장인 한국토지공사 명예퇴직 후 유학을 간 미국 퍼듀대학교에서 2002년 박사학위를 마치고 Indiana DOT에서 지반공학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8년 9월부터 모교인 조선대학교 토목공학과에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지난 10월 공과대학장에 선출된 김대현입니다

Q. 경력이 좀 다양하신데요, 명예퇴직도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교수님 경력 부분을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1995년 한국토지공사에 공채로 입사하여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IMF 경제위기로 1999년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IMF로 인해 환율도 1달러당 1800원이나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도시 출신도 아니고 본가가 전남 고흥으로 넉넉한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3000~4000만원 정도였던 명예퇴직금으로 아내와 2살, 돌 지난 딸 둘을 데리고 유학을 결심하였습니다. 무모한 도전이었죠. 지금이라면 아마 그런 선택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퍼듀대학교에서 지반공학 전공으로 2002년 8월 박사학위 취득 후에는 Indiana DOT*1 에서 지반공학연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Indiana 주정부의 공무원이자 연구원으로 근무시 주로 퍼듀대학교의 교수님들에게 연구를 발주하고 연구 수행 및 관리를 하였는데, 영주권까지 받고 생활하던 중에 2008년 9월 조선대학교에 부임하였습니다. 당시에 아이다호 주립대학교에서도 오퍼를 받았었지만, 후학들에게 제가 겪었던 경험을 공유하고 자신감을 고취시키고자 모교로 부임하였고, 학과장을 거쳐 지금은 공과대학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1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Q. 공과대학장으로 지원하신 동기는 무엇인가요?

조선대학교 공과대학은 총 15개 학과에 4500여명의 학생이 있고, 122명의 교수님들이 계실 정도로 전남지역에서 매우 큰 사립 공과대학입니다. 그러나 최근 지방사립대학들이 학생모집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국립대학이나 서울·수도권 지역의 대학으로 편입이 증가하면서 위기의식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재단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구조조정이나 유사학과 통폐합과 같은 일방향 정책들에 대비하여 보다 좋은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공과대학 교수님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교수님들의 자긍심 고취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고, 학생들에게는 더욱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고자 공과대학장 선거에 도전하였습니다.





Q. 모교출신이라 학교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현재, 공과대학장으로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전에는 공과대학장 하나의 역할만 수행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고, 재정이 빠듯해짐에 따라 겸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일들은 공과대학장뿐만 아니라 지역혁신플랫폼 센터장, 산업기술대학융합원장, 공학교육센터장 등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호남발전특별위원회와 같은 지역봉사활동도 많은데 그럴수록 많은 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교수님께서도 학장으로서 지방사립대학교 학생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실텐데, 우리 분야로 좁혀 보면 토목공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 역시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감소를 대처하는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학생들의 생각이나 트렌드에서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학과의 경우 약 80명정도가 졸업을 하는데, 15명 정도는 지방 토목직 공무원, 5~10명 정도는 농어촌공사, LH 등 공기업에 취업을 합니다. 산업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학생 수는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그동안은 공무원, 공기업에 들어간先輩들을 사례로 취업특강을 하였는데, 앞으로는 엔지니어링에 종사하시는先輩들의 사회적 기여 활동들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토목공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외국에서는 Civil Engineer는 존경의 대상이고 급여 대우도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토목공학에 대한 좋지 않은 의식들이 있고, 최근 성남 대장동 개발 관련 기사에도 토건세력이라 부르며 비위자로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의 품격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회 기반시설물을 만드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이를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여 학생들이 토목공학자, 지반공학자로 합류하는데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같은 전공자인 우리끼리가 아닌 일반 사람들과의 교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사범대 교수님과 ‘지진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초·중고 학생들에게 함께 교육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사범대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잘 설명하는 것을 보고, 비전문가에게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잘 전달하는 기술을 함양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Q. 개인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유학가실 때 두 아이와 함께 가셨는데, 가족소개와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유학가기 전 한국에서 태어난 두 딸과 유학시절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이 1명 있습니다. 큰 딸은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결혼하여 제가 벌써 손자가 2명이 나 있습니다. 사위는 컴퓨터를 전공하였고 제 딸과는 유치원때부터 친구 사이입니다. 둘째 딸은 미국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였는데 이제 막 졸업하여 직장을 찾는 중이고, 막내 아들은 이곳에서 문예창작을 전공하는 대학생입니다. 제 아내는 도예전공으로 박사과정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자식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찾아가는 것을 추구하기에 아이들이 결정하는 것들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편입니다.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유학생 시절 플로리다로 가족여행을 가는데 풍요롭지 못한 유학생 생활이라 숙박비 등 경비절감을 위해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17시간동안 아내와 밤 운전을 교대해 가면서 갔습니다. 사고날 뻔 하기도 해서 아내와 말다툼도 있던 도전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여유롭지 못하여도 가족과 함께 생활했던 그 때가 제일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Q. 지금은 자녀들도 미국에서 지내고 자주 못 보실텐데 취미생활은 어떤걸 하시나요?

요즘은 워낙 바쁘기도 하여 취미, 여가생활을 잘 즐기지는 못하지만 지인들과 가끔 골프를 치기도 하며, 넷플릭스로 영화를 감상하기도 합니다. 기타를 배우고 싶는데 시간이 없어서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 연구실 모임 사진

Q. 마지막으로 지반공학회 회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는 복잡한 사회입니다. 새로운 것들에 대한 시류는 따라가되, 기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새로움에 대해 휩쓸리지 않는 통찰력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스스로 기본이 되는 우리 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 지반공학분야에서 일할 젊은 엔지니어가 적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자리를 잡고 있는 선배 엔지니어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 후배 엔지니어들이 좋은 자리를 찾아가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학회 회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만들어주었으면 합니다.

인터뷰 후기

Zoom회의로 인터뷰를 약속할 때 30분정도만 시간을 내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실제 인터뷰는 50분 가량 진행되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을 지면에 실지 못하였지만, 도전의 연속인 김대현 교수님의 지난 과거와 현재를 들으면서 교수님의 소명과 열정을 느꼈습니다.

특별인터뷰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회원분들은 언제든지 학회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kgssmfe@hanmail.net)

19대 지반공학회 10월 정기이사회

19대 지반공학회 정기이사회가 10월 13일(수) 오후 6시에 학회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병행으로 열렸습니다.

본 10월 정기이사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 28명 신규가입회원 승인 (정회원 18명, 종신회원 7명, 학생회원 3명) ▲ 학회장 및 감사 후보자 자격기준에 대한 학회운영규칙 개정 승인 ▲ 2021년 8월, 9월 회계보고 ▲ KGS 전통강화 방안 검토 ▲ 4건의 연구용역 신규계약 건 보고 ▲ 가을 학술발표회 결산 보고 및 역대 학술대회 기록 정리 ▲ 국문논문집 논문 현황 및 과총 2021년도 국내학술지 지원사업 중간보고서 제출 ▲ 지반 학회지 9월호 발행 및 11월호 편집 계획 진행사항 ▲ ICPMG 2022 진행사항 및 국제 협력관계 재개 계획(미국 Geo-Institute 등) ▲ 영문논문집(IJGE) 현황 및 SCI 등재 필요 사항 보고 ▲ 대외협력 및 홍보분야, 홈페이지 개선 진행사항 보고 ▲ 전문위원회 활동현황 통계보고 (9월말 기준)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회의 정기이사회는 격월(짝수월)로 여러 안건들을 의결하고, 전담이사회는 매월 분야별로 업무를 공유하며 학회장님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 한국지반공학회 제19대 10월 이사회

일 시 : 2021년 10월 13일(수) 18시
장 소 : 학회 대회의실

[Zoom 회의 참가]

<https://us02web.zoom.us/j/86396754299?pwd=chU3ZpU1hSMzV1Ny9sVFQ0NHFEZDZ09>
회의 ID: 863 9675 4299 / 암호: 738899



특별히 금번 정기이사회에서는 신임이사 승인과 총무 전담 간사가 위촉되었습니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의 박용부 박사님께서 개인적 사정으로 이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현대건설의 차경렬 상무님이 신임이사로 추천되었습니다. 임기 중간에 발생한 사안으로 이사회에서 선 승인 후 공백을 메우고 정관에 따라 2022년 3월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총무 전담분야에서 회원관리 등 업무 협조를 위한 간사로 인하공업전문대학 **곽창원** 교수님이 위촉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임 차경렬이사님과 곽창원간사님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제3회 정한 신임이사 승인

정회원: 18명, 종신회원: 7명, 학생회원: 3명

제12차(10월)의 정회원: ① 부회장과 비서: 최정아, 주진하, 홍희, 정영민

~ 임기 공백에 발생한 사안으로 선 승인 후 공백을 메우고 정 3회 제3차 정한에 따라 2022년 3월 정기총회에서 인준 요청

제4회 정한 감사 및 감사 후보자 자격기준에 대한 운영규칙 개정

의결: ① 감사 및 감사 후보자의 자격기준은 임의하여 하기 ①부터 ③까지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일부 개정

항목	제4회 정한 (21년 현재)	제4회 정한 (21년 현재)	제4회 정한 (21년 현재)
정회원	18명	18명	18명
종신회원	7명	7명	7명
학생회원	3명	3명	3명
총무	1명	1명	1명
감사	1명	1명	1명
비서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1명
정영민	1명	1명	1명
최정아	1명	1명	1명
부회장	1명	1명	1명
주진하	1명	1명	1명
홍희	1명	1명	

지반공학회 2021년도 고문 초청 간담회

지반공학회 2021년도 고문초청간담회가 10월 12 일(화) 오후 6시에 열렸습니다. 우리 학회에는 현재 역대 지반공학회장을 역임하신 14분의 고문과 2분의 추대 고문이 계십니다. 금번 고문 간담회 행사에는 총 7분의 고문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19대 지반공학회 집행부 대표로는 정문경회장과 김영근부회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여러 고문님들의 인사말과 더불어 김영근 부회장의 2021년 학회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 제 37회 정기총회 및 봄 학술발표회, ▲ 제 8회 지반의날 행사, ▲ 가을학술발표회, ▲ 대외협력사항(한국건설기술관리 협회,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와의 MOU) 등 2021년 도 주요 활동 및 행사보고에 이어서, 19대 지반공학회 집행부의 추진 업무로는, ▲ 온라인 콘텐츠강화 (학회지 콘텐츠 강화, 뉴스레터 동행 발간, 홈페이지 개선작업 등), ▲학회 운영규칙 개정, ▲국제학술대회 ICPMG 2022 개최준비 등을 보고 후에 고문님들의 최근 경제적으로나 코로나 등 사회환경적인 어려움속에서 학회에 대한 조언과 격려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병희 고문님



*김수삼 고문님



*김영근 부회장, 정문경 회장



*김영운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님

광주·호남 지역발전특별위원회 방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잠시 주춤했던 지반공학회 집행부의 지역발전특별위원회 방문이 오랜만에 재개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2일(금) 한국지반공학회 집행부에서는 광주·호남 지역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현)를 방문하였습니다. 정문경회장을 비롯하여 백용부회장, 이종섭, 박두희, 김영상 전담이사, 김대현 위원장의 위원들이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모여 ▲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 ▲ 애로사항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학회 소식 및 현안사항 전달, ▲ 학회 및 지역발전특별위원회의 발전 방안, ▲ 기타 안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회의 이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근처의 식당에서 정말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고 건배를 하며 단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광주·호남 지역 지반공학회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와 활동을 기대합니다.

한국지반공학회 지역발전특별위원회 방문 시리즈

우리 학회에는 1개의 지부(동남권지부)와 5개의 지역발전특별위원회(강원지역, 광주·호남지역, 대구·경북지역, 대전·충청지역, 인천지역)가 있습니다. 19대 학회 집행부에서는 각 지역발전특별위원회의 고충을 함께 나누고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며 격려하고자 올해 각 지역위원회를 방문하는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7일 동남권지부 방문을 시작으로 대전·충청지역(6월 21일), 대구·경북지역(7월8일)을 차례로 방문하였고, 여름기간동안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잠시 중단 후 방역수칙 변경에 따라 광주·호남지역부터 재개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강원지역방문 및 인천지역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각 지역 지반공학회원분들의 활동과 학회발전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응원 부탁드립니다.



* 광주지역 방역수칙에 따라 백신접종자포함 10명 이하의 모임이 가능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황

학창시절 흙, 암반, 물의 상호작용 집합체인 지반 공학의 기초를 처음 접했습니다. 지반공학은 건설분야의 한 부분이면서 가장 오래된 학문중의 하나인 터라 배울 것도, 모르는 것도 많아서 20 여년 넘게 흥미를 잃지 않고 재미있게 근무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래지반연구소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래지반연구소의 대표이신데 CEO로서의 하루를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황

저희 회사는 크게 지반조사, 설계, 토목계측,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링팀 / 연약지반 개량 시공팀 / 개량장비 개발팀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총괄하는 것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 직원들과의 회의

미래지반연구소 창업 계기와 초기 여건은 어떠했는지요?

황

2000년 광양에 처음 왔을 때 한창 광양시청 이전, 컨테이너 부두 건설 및 배후단지 조성공사 등으로 일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측량기를 보고 제가 스타프 잡고 같이 수준 측량하는 모습이 다른 분들께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입소문으로 토목 계측관리가 필요할 때 저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연약지반인 지역의 특성에 비해 지반거동을 관측하고 해석해 줄 용역 업체가 관내에 없는 것을 착안하여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순신대교와 광양제철소



* 미래지반연구소 본사



지반공학분야에 일하는 여성 엔지니어가 많지 않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황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이 터널공사에 출입하는 것과 해상 지반조사할 때 바지에 승선하는 것도 꺼리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일종의 미신이었죠. 지금은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진출 기회가 많아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를 들면, 1997년 남편과 ‘광양항 배후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토목계측을 담당하며 첫발을 디뎠는데 당시만해도 여자가 드넓은 단지에서 안전모, 안전화, 각반 착용하고 스타프 들고 뛰어다니는게 신기하게 보일 정도였으니깐요. 그만큼 여성으로는 토목 분야가 불모지였어요.

아무래도 잦은 타지 출장과 긴 시간의 외근이 여성 엔지니어에게 가장 큰 장애요소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토목현장에서 심심찮게 여성 엔지니어를 볼 수 있어 동지애를 느낍니다.

후배 여자 엔지니어들에게 몇 가지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말자.

기술은 미래에 내 자신에게 보상을 해준다.

둘, 여자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가두지 말자.

남자가 할 수 있다면, 여자도 할 수 있다.

셋, 남자가 많은 곳에는 여자가, 여자가 많은 곳에는 남자가 더 각광을 받는다.



* 현장 안전모가 익숙한 모습



토질및기초기술사 여성 1호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험 준비과정이나 면담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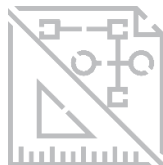
황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공사”에서 계측관리용역을 수행할 때의 일입니다. 남편이 상의도 없이 고급세단 차기를 건내면서 “과분한 사치냐 격에 맞는 생활이나”를 선택하라 하더군요. 그렇게 얼떨결에 기술사 시험을 준비했던 거 같습니다.

지반침하, 전단의 원리를 알기 위해 부산대 토질실험실에서 이론을 체계화시켰고 현장에서 스타프 잡으면서 실제 지반거동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론과 실전이 맞지 않을 때는 원인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면접에서는 원뿔형 지반의 집중응력에 대해 질문 받았는데 입가에서 머뭇거리기며 황설수설했던 거 같아요. 오히려 가르침을 받고 왔습니다. 지금 다시 물어보면 탄성론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데....



* 프로젝트 착공식에서





연약지반 업무를 하시면서 어려웠거나 인상 깊었던 경험을 말해주세요.

황

2010년 '여수산업단지 조성공사' 연약지반 분석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3년을 광양에서 여수로 한 시간 거리를 출퇴근했습니다. 수도권은 대수롭지 않겠지만 지방에서 한 시간 출퇴근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처음엔 여자라서 못미더웠던지 발주처 담당은 연약지반에서 일반적인 개연성 가지고 매일 명쾌한 답을 요구하는 숙제를 내줬고 다음날 종일 회의를 했습니다. 정말 힘든 일과였습니다. 그렇게 1여년의 시간이 지나자 저의 분석결과에 대해 100% 신뢰하더군요. 돌아해보면 그때 제가 많이 힘들었던 만큼 배움도 컸던 것 같습니다.



최근 AI, 메타버스, MG/MC 등 새로운 물결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시는 업무 중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시면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황

장비의 자동화, 전산화, 정보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SCP/GCP 장치에서 기계식을 전자식 기록지로, PBD 타설 위치를 인력에서 GPS장치로, 표층처리장비의 운전원에서 원격제어장치로 저희도 상당히 깊은 연구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대체가 완료된 것도 있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나아갈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 표층처리용 무인원경조정포설기



* GPS 장치가 부착된 인입식 PBD 장비



* 무진동, 저소음 자동기축 SCP/GCP 장비



마지막으로, 본사가 전라남도 광양이 있는데, 광양이라는 지역을 소개 해주십시오.

황

먹거리로는 광양숯불고기, 눈요기로는 매화축제, 이순신대교, 배알도가 있는 고장입니다. 지반공학자로서는 삶의 먹거리가 풍부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여수, 순천, 광양으로 영역을 확대하면 연약지반이 많거든요.

Sunshine
GWANGYANG

<<광양시청문화관광홈페이지_www.gwangyang.go.kr>>

바쁘신 회사관리업무 중에도 많은 시간을 내주신 황은아회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학회 뉴스레터지는 일반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학회사무국 이메일로 신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kgssmfe@hanmail.net

1. (주)휴먼앤어스

(주)휴먼앤어스는 인류와 자연의 미래를 개척하는 지반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2003년 설립하여 (설립자 : 변영봉, 정호준) 현재 19년동안 지반분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반조사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턴키/대안/제안/민자사업 등과 항만/해상/지진/토질/기타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반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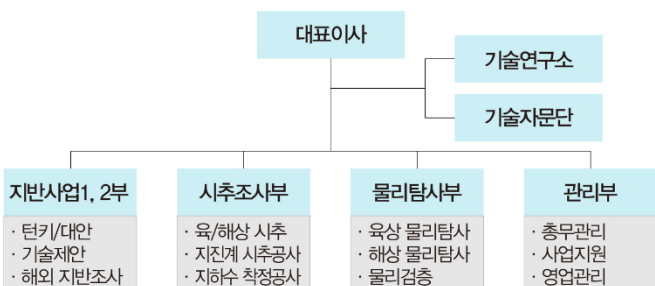
(주)휴먼앤어스는 창조적인 사고와 프로페셔널리즘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 업무의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평적인 분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지식경영으로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2003년 설립 이후 고려대학교, 청주대학교, 강원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과 기술이전 및 산학 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업무의 퀄리티 및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반사업부, 시추조사부, 물리탐사부, 관리부 등으로 구성되어 턴키/대안 프로젝트 지반조사, 육/해상 시추조사 및 현장시험, 지구물리탐사/정밀공내검층, 광산 및 지하수 개발/지진계 시추공사 등 지반조사 분야와 관련된 모든 영역을 일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회사 연혁 |

2003년 04월	(주)휴먼앤어스 법인 설립
12월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등록(토질지질)
12월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
2005년 06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계약 체결
10월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사업(NUR) 참여 협약 체결 (청주대학교)
2006년 01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계약 체결 (OPTu 평가의 수차해석적 평가)
03월	지하수개발 이용사업업 등록
09월	강원대학교 산학 협력 협약 체결
2007년 05월	지하수영향 조사기관 등록
2008년 12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2009년 11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기술이전 계약 (시추공내 차분자기장 검층기술)
2015년 11월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
2016년 08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2018년 05월	강원대학교 산학 협력 협약 체결 (해저지반용 암반분류 프로그램, SMR)



2. 보유 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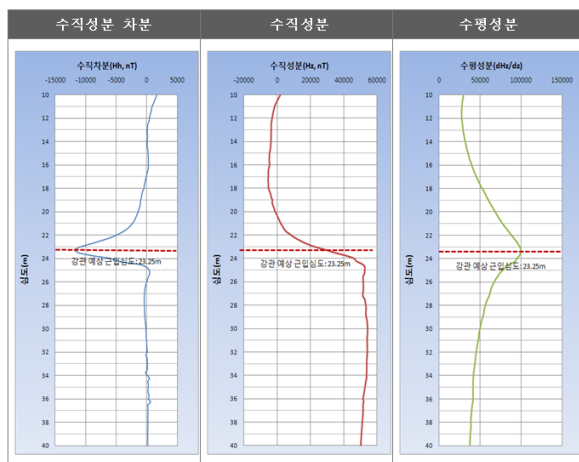
경쟁 설계 지반조사를 주력사업으로 하는 (주)휴먼앤어스는 공내재하, 전단, 피에조콘시험 장비 및 전기비저항 탐사, 탄성파탐사, 전자탐사, 시추공영상촬영 장비 등 각종 현장시험 장비와 물리탐사, 검층 장비를 보유하여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유 중인 장비 중에 대표적인 장비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만 프로젝트 수행시 꼭 필요한 SEP Barge 및 Pontoon Barge를 보유하고 있어 수심, 조류 등 현장여건에 맞춰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SEP Barge 작업전경〉

2009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시추공내 차분자기장 검층기술 이전 계약을 맺고 기존 교량 안정성 검토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강관파일 기초의 근입 심도 파악을 위해 시추공 자력탐사 장비를 직접 제작,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천대교 자력탐사 결과〉

그 외에 공내 경사도 검층기, 고해상도 카메라검층기, SPT자동기록장치 등을 보유하고 있어 차별화된 지반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지반조사분야 선도

3.1 국내 최다·최장 헬기시추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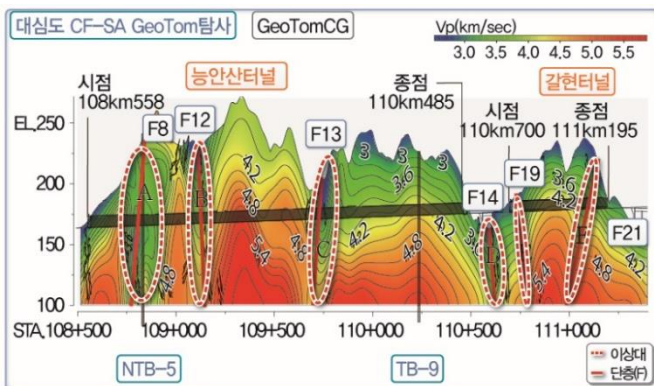
2004년도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정관~석대) 건설공사 대안설계 프로젝트에서 헬기시추 2공, 2009년도 고속국도 제60호선 춘천~양양간(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 제11공구 턴키 프로젝트에서 헬기시추 2공 등의 경험을 토대로 2016년도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 제8공구 건설공사 턴키 프로젝트에서 백두대간(문경새재) 보호구역 터널 통과에 따른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헬기를 이용한 시추조사를 계획하여 국내 최다·최장 헬기시추 4공(총 연장 1,380m)을 수행하였습니다.



〈헬기를 이용한 시추조사〉

3.2 무선 수진기를 활용한 국내 최초 최장 대심도 CF-SA GeoTom탐사 수행(탐사연장 2.9km)

2016년도 서울~세종 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 턴키 프로젝트에서 유선 연결 탐사방식의 축선전개 한계를 극복하고 Cable 및 System에 의한 취득자료 오류 최소화를 위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공동으로 국내 최초 최장 대심도 CF-SA GeoTom탐사를 수행하여 미시추구간 암반등급 산정의 적정성을 확보 하였습니다.



〈대심도 CF-SA GeoTom탐사 결과〉

3.3 앵커리지 스트랜드홀 천공의 시공성 검증을 위한 실규모 시험천공 및 시공장비 신뢰성 확인

2020년도 국도77호선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공사(1공구) 턴키 프로젝트에서 국내 최초로 현수교 앵커리지 스트랜드홀 천공의 시공성 검증을 위해 현장에서 실규모로 대구경시험천공을 실시하고, 공내 경사도 검증을 수행하여 시공장비의 신뢰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실규모 시험천공 및 공내 경사도 검증〉

3.4 지진관측장비 설치환경 조성공사 & 지진관련 지반조사/물리탐사 수행

2015년~2021년도에 기상청 발주의 지진관측장비 설치환경 조성공사 시추공사 및 경주, 포항 지진관련 지반조사, 물리탐사 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습니다.



〈경주지진원구역
장주기 MT탐사〉

4. 해외로의 진출

4.1 과테말라 항만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15년도 한국-과테말라 항만개발협력 방안의 일환으로 과테말라 북동쪽에 위치한 산토 토마스(Santo Tomas)항에서 부두 동쪽 컨테이너부두 확장 예정지 3공 및 서쪽 크루즈부두 예정지 2공 등 총 5공의 해상 시추조사 및 현장/실내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과테말라 현지의 Pontoon Barge를 이용하여 시추작업을 수행하였는데, Pontoon Barge 조립하는데 3일 정도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테말라 항만 기본계획 지반조사〉

4.2 캄보디아 살라타온댐 실시설계 및 감리용역 지반조사

2015~2016년도에 캄보디아 바탐방시 북쪽에 위치한 살라타온댐 건설 예정부지에서 시추조사 15공 및 현장/실내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지 지반조사업체를 활용하여 작업을 하였고, 시추장비는 국내 장비에 비해 매우 열악하였습니다.



〈캄보디아 살라타온댐 지반조사〉

4.3 캄보디아 항만물류기능 활성화를 위한

수로개선 타당성조사사업 사업수행기관(PMC)용역

2016년도에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MPWT)와 프놈펜항만청(PPAP)이 KOICA에 지원요청한 사업으로 메콩강의 항만 물류기능 활성화를 위한 수로개선을 통해 캄보디아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국제사회에 캄보디아 국가 위상 제고, 캄보디아와 대한민국간 건설한 유대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프놈펜에서 캄퐁참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총 30공의 시추조사 및 현장/실내시험과 시추위치를 중심으로 시추조사 수행 전 메콩강 바닥에 폭발물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캄보디아 KOICA 지반조사〉

5. 맺음말

(주)휴먼앤어스는 2003년에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물리탐사 등 분야별 최고의 기술진들이 모여

“젊음으로 도전하자!

믿음으로 하나되자!

실력으로 승부하자!”

라는 사훈 아래 턴키/대안/민자/해외 프로젝트 수행에 적합한 조직 및 기술인력을 구축하고 경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기술과 열정으로 모든 프로젝트의 경쟁력에 주춧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휴먼앤어스
HUMAN & EARTH INC.

학회 뉴스레터지는 일반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회사/조직의 소개를 원하시는 분들은 학회사무국 이메일로 신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kgssmfe@hanmail.net

표지 사진 이야기



지반공학회 NEWS LETTER 11월호 표지 사진은 이철주 회원(교수, 강원대학교 토목공학과)의 사진입니다.



필자의 고향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에 있는 동강을 가기 위해서는 길이 30m 정도되는 터널을 지나게 된다. 몇 년전까지는 1978~1979년에 뚫은 굴(터널보다는 굴이라는 명칭이 더 잘 어울린다. 현재 평창서 건설업 3대를 잇고 있는 제자의 조부님과 아버님이 건설 과정에 참여하셨다고 한다)을 이용했었는데, 이제는 도로선형개량사업으로 도로가 신설되면서 현대식 NATM 터널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석회암에 만들어진 이 굴에는 아무런 보강공이 없고 수많은 불연속면이 형성되어 있고 그 상태도 그리 양호해 보이지 않아서, 일견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지만 40여 년의 세월을 지반아치(Ground Arch)의 원리를 충실히 따르며 묵묵히 잘 견뎌오고 있다. 노르웨이에 가보니 슛크리트 및 록볼트가 시공되어 있지 않은 터널구간이 일부 있었는데 이 굴이 딱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여담 한가지. 굴을 만들 당시 발파작업이 위험천만하게도 무자격자에 의해서 수행되었다고 한다. 이곳은 교통량이 적은 곳인데, 굳이 터널을 신설하지 말고 이 굴을 조금 손봐서 계속 사용했었다면 훨씬 좋을 것을 거라는 아쉬움이 크다.



“표지 사진 모집합니다.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반공학회 NEWS LETTER “동행”의 표지는 회원분들께서 직접 찍으신 사진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여행가서 찍은 사진, 일하면서 찍은 사진, 작품사진, 30년 전에 찍은 사진, 오늘 찍은 사진 뭐든지 좋습니다. 단, 사회적/법적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사진이어야 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학회 이메일(kgssmfe@hanmail.net)로 사진과 간단한 설명을 보내주시고 메일 제목에 “뉴스레터 표지사진 응모”라 기입하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1월 Quiz

지반공학회 NEWS LETTER는 월간으로 발행되는 회원들의 소통을 위한 비공식 내부 잡지입니다.

Quiz는 각 월호에 실린 내용을 읽으셨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Quiz에 대한 답은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보내주신 1분과 이외 보내주신 분들 중 3분에게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음료권을 보내드립니다.

답변을 보내실때에는 소속과 성함,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11월호에서 알려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Quiz :

우리나라 해안지역 중 연약지반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곳은?

- ① 광양 ② 여수 ③ 인천 ④ 강릉

정답 보내실 곳 : kgssmfe@hanmail.net

이메일 제목 : 11월 Quiz 정답

10월 Quiz 정답 : ③ 소양강댐



정답자 분들에게 스타벅스 카드 e-Gift 1만원권을 문자로 발송해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초 정답자 : 백광민 회원(한국종합기술)

추첨 당첨자 : 신동훈 회원(K-Water 연구원)

광고

국제학술대회 2022 ICPMG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icpmg2022.org>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hysical Modelling in Geotechnics 2022

KAIST, Daejeon, Korea / 19-23 September, 2022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hysical Modelling in Geotechnics
제10차 지반물리모형실험 국제학술대회

일자 2022년 9월 19일 ~ 23일
장소 KAIST 문지캠퍼스 강의동



Topics

- Physical modelling facilities and equipment
- Scaling principles and modelling techniques
- Sample preparation and characterisation
- Instrumentations and measurements
- Physical/Numerical interface and comparisons
- Soft ground and improvements
- Offshore geotechnics
- Earthquake related problems
- Geohazards
- Underground structures and pipelines
- Excavations and retaining structures
- Foundations
- Dams and embankments
- Education
- Applications in engineering practice
- Others

Organized by  **한국지반공학회**
KOREAN GEOTECHNICAL SOCIETY

Sponsored by  **DIME**
대전마케팅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한국관광공사

ICPMG 2022 사무국 #402, Building D, 17, Techno 4, Yuseong-gu, Daejeon, 34013, Korea
T. 042. 489. 7070 / F. 042. 489. 7071 / E. secretariat@icpmg2022.org